

■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광주에만 오면 힘이 저절로 솟아요”

풀코스남심재 덕씨



“광주에만 오면 힘이 납니다.” 풀코스남자 부문 우승자 심재덕(41·경남 거제)씨는 폐조의 질주로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심씨는 선두 다툼을 하며 알찬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도와준 준우승자 김동욱씨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내년 대회에서 4연패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작년 2위恨 풀어 기분 최고예요”

풀코스여정기 영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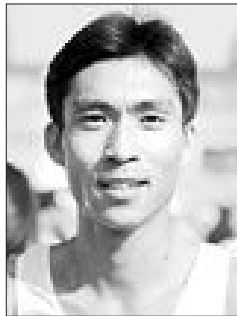


“올 해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기쁨이 두 배입니다.” 대전에서 광주를 찾은 정기영(51)씨는 가장 먼저 42.195km를 완주하면서 풀코스 여자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정씨는 이번 대회에서는 당당히 1위 시상대에 오르며 대회 주인공이 됐다. “결승선에 들어올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힘든 것을 잊고 달리게 됩니다. 달리기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많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연패 달성...내년 목표는 풀코스 우승”

하프코스남백영 인씨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은 아름다운 코스에서 남도의 따뜻한 봄볕을 맞으며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대회입니다.” 경북 구미사람마라톤 소속 백영인(36·경북 구미시 송정동·공무원)씨가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하프 코스 남자 부문 2연패를 차지했다.

백씨는 “하프 코스에서 2연패 했으니, 내년에는 풀코스에 도전해 우승을 노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이들의 꿈·희망 안고 뛰고 또 뛰어”

하프코스여이정 숙씨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 출신은 쉽게 달리는 줄만 아는데, 이 대회를 앞두고 주말마다 훈련했습니다.” 하프 코스 여자 부문 정상에 오른 이정숙(44·충북 천안·교사)씨는 전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의 육상지도자이다.

정씨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달리는게 행복...하루 15km씩 맹훈련”

10km남김용택씨



“마라톤 때문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10km 부문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김용택(31·인천시)씨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우승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다음에는 하프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마라톤으로 건강·자신감까지 얻어”

10km여여종선씨



“2연패를 하게 돼 더 없이 기쁩니다. 내년에도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던 여종선(38·서울시 동작구)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자 10km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우승 신화를 이어갔다.

종씨는 “가정주부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는데, 마라톤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내·아들에 우승 선물, 너무 기뻐요”

5km남최원석씨



“광주일보대회를 처음 출전했는데 우승이라니 무척 기뻐요. 아내와 아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남자 5km 부문에서 1등으로 골인한 최원석(37·전북 익산시 팔공동)씨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최씨는 “다음에는 하프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건강 지키고 1위자리도 지켜 기쁨 두배”

5km여남미옥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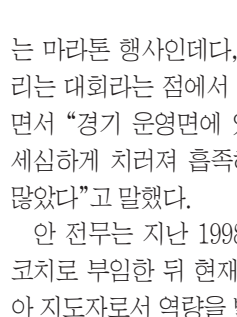


“건강도 지키고, 1위 자리도 지켰습니다.” 여자 5km 부문 우승자 남미옥(43·전북 군산)씨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씨는 “몸이 좋지 않아 몇 달 동안 필드에 나서지 못했었다”며 “달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예상치 못한 대회 2연패까지 하게 돼 더욱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날씨·진행·자원봉사 완벽...역시 호남 대표 마라톤 대회”

심판총괄 게시안 재 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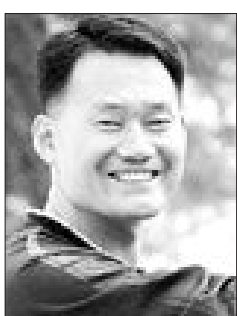
“화창한 날씨, 1만여명의 출전자, 경기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시민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새봄 맞이 축제 현상이었습니다.” 제 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심판총괄 게시안(42)씨는 “호남을 대표하

는 마라톤 행사인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신경을 썼다”면서 “경기 운영면에 있어서도 깔끔하고 세심하게 치러져 흡족해지는 출전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마라톤을 즐기는데 더없이 좋은 날씨 덕분에 출전자들의 기록도 전문 선수 못지 않게 무척 좋게 나왔다”면서 “매년 참가자들이 1만여명에 달하는데 좋은 기록도 많이 나와 모든 마라토너들에게 참

m. 800m와 함께 3관왕을 차지했던 김재다(교사) 등 다수의 선수들을 키워냈고 이러한 공로로 대한육상경기연맹 우수 지도자상과 공로상,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씨는 “마라톤을 즐기는데 더없이 좋은 날씨 덕분에 출전자들의 기록도 전문 선수 못지 않게 무척 좋게 나왔다”면서 “매년 참가자들이 1만여명에 달하는데 좋은 기록도 많이 나와 모든 마라토너들에게 참



가하고 싶은 대회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안씨는 “광주일보 마라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라톤 코스 곳곳에 위치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풀코스 100회 완주 철각

연세대 의대 이재승 교수



군산교도소 이준재 교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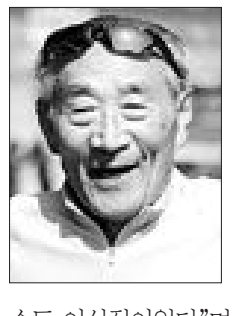
연세대 의대 이재승(66·소아과)교수와 군산교도소 이준재(55) 교도관이 이날 아마추어로서 풀코스 100회 완주라는 놀라운 결실을 이뤄내 눈길을 모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120여 명만이 달성한 기록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떼다 보니까 100회를 채우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입문한 이 교도관은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즐겨하던 술과 담배를 모두 끊게 됐고, 스트레스 없는 직장 생활도 덩어리 얻었다.

■ 이색 참가선수·팀

“내년엔 풀코스 도전...100살까지 뛰겠다”

82세 최고령 김종주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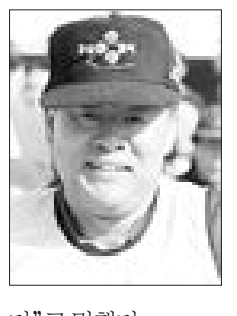


“100살 마라톤에 도전한다.” 경기도 용인에서 광주를 찾은 82세의 김종주 옹은 이번 대회 하프 부문 완주로 대회 최고령자로 이름을 올렸다.

회장이기도 하다. ‘철마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80대 마라토너는 김 옹이 유일하다. 3·1 마라톤에 처음 출전한 김 옹은 “최상의 날씨에 코스가 이상적이었다”며 “내년에는 풀코스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경제위기 극복, 검찰 의지 보여줬죠”

박영렬 광주지검장



“직원들과의 완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박영렬(53) 광주지검장은 1일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5km를 뒀 뒤 “따뜻한 봄햇살 속에 시민들과 함께 달린다는 것 자체가 짜릿한 경험”이라며 “화창한 날씨 만큼이나 지

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

“2년연속 하프 완주...시민들에 희망 주고파”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임내현(56) 전 광주고검장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라톤 하프코스를 완주해 눈길을 끌었다.

반이라는 나이를 무색케 했다. 임 전 고검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검찰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힘이 들어도 끝까지 달렸던 경험”이라며 “화창한 날씨 만큼이나 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인 되겠습니다”

‘포병 사랑 마라톤’ 동호회



3·1 마라톤 대회가 열린 광주시 월드컵경기장에서 짧은 머리를 한 군인 66명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육군 포병학교 마라톤 동호회 ‘포사마’ (포병학교 마라톤 사랑 동호회) 회원들로 포병학교 장교 40명과 교육생(대위)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에게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 대회에는 포병학교 간부들을 비롯해 가족간의 친목 도모의 장이 되고 있다. 포사마를 이끄는 심재홍(53)대령은 “군인들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자 처음으로 출전했던 행사가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절세혜택 놓치지 마세요” 시민에 홍보

광주지방국세청 팀



‘건강도 챙기고, 납세자들의 권리로 챙기고’ 1일 오전 광주시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김광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 직원 120명이 참가해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이들은 대회에 앞서 경기장 인근에서 ‘근로장려세제 최대 120만원’과 ‘현금영수증 톤입니다’라는 홍보물을 작성해 캠페인을 벌